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 顯祖實錄探險

매헌梅軒 권사민權士敏의 시문학詩文學과 사상思想



권오신 작운공사람들 저자, 칼럼니스트

심사환향(尋屍還鄉: 친구의 시신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옴) 운명이고구나, 이 사람이여, 어찌 귀신의 옛봄이 이다지도 심한가? 강물도 신 떨어뜨린 것을 슬퍼하거늘, 하물며 우리와 같이 독실한 친구사이 입애라?

차마 그대의 시신을 짊어지고 노는 내내 슬프고 슬퍼서 죽는 것만 같구나.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말이 귀에 쟁쟁하니 어찌 이 걸음이 이렇게도 느린가. 지난번에 정성을 다한 상소로 임금님의 허물을 고치려고 하였건만, 정성이 부족하여, 은혜는커녕 꾸짖으심이 이다지도 급박하신가.

바로 그대와 더불어 함께 길을 걸었지. 형주(荊州: 漢나라 九州의 한 곳)와 양주(襄州: 구주 지금의 중국호북성中國湖北省) 사이에 이르러 말이 서로 맞아서, 그런데 복도 없는 이 사람이.

문득 중도에서 어찌 병은 걸렸는가, 실낱 같은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슬프지만, 참으로 약 쓸 수 없는 곳에서 목숨을 보전하기 어렵구나.

어찌 한생(平生)의 급작스런 죽음이 국자(國子)의 통곡을 재촉할 줄 알았으리오. 멀리 고향을 떠나왔으니, 저 나그네 영혼을 장차 누구에게 부탁할꼬.

죽으면서 거듭 당부한 말, 시신이 진흙에 버려질까 걱정해서이라. 다른 사람도 안타깝게 여길 일이지. 하물며 나의 마음 그 어찌하겠는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떠나가야 하는 몸, 임시로 길가에 묻어 두었지.

남쪽 바닷가에서 한 해를 보내자. 우리가 온 땅을 적시는 듯한 임금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네. 어찌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 기쁘지만 할까.

그대를 생각하여 그곳에 있을까 늘 염려 하였다네.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대의 시신을 찾으려 해도 찾을 길이 없네.

어찌 저 장마비에 강물이 이렇게도 불어나서, 이다지도 나를 격정하게 하느냐 물을 거슬러 올라가 찾으려 하니 길이 막혔고 또 멀리, 물 따라 내려가 찾으려 하니 여전히 물 저쪽이로구나.

찾아도 찾아도 보이지 않고, 낯짝만 하루 이를 흘려가네. 곡소리는 하늘에 사무치고 눈물은 샘물을 이루었네. 또한 귀신도 불쌍하게 여기어 곁에 있었구나.

문득 목숨에서 시체가 솟아올라, 이 어찌 영혼이 찾아온 것이 아니겠는가 잠시 보고 손으로 끌어당기니, 그대가 어찌 여기 있는고.

그대를 짊어지고 고향으로 돌아와 구천에 있는 그대의 영혼을 위로하였는데, 비록 유명은 달리했으나, 그대도 함께 돌아오지 않았는가? 그로부터 예로부터 성인의 말에 벗은 오륜(五倫)의 하나라 하였지요.

벗이면서도 신의가 없다면 어찌 다시 얼굴을 들겠는가 그대의 시신이 돌아오게 되니, 나에게도 더욱 빛나는 일이 되었네.

백 년이 지난 뒤에 그대와 더불어 천상에서 뛰어놀리라. 부賦 <한대漢代>에 선행했던 운문의 일종이며 감상을 느낌 그대로 적는 시詩 형식의 글) 초나라 시인詩人 굴원屈原의 초사楚辭로부터 발달했다. '부'는 퍼다 혹은 깔다의 의미, 창작상의 '사실주의 기법'에 해당한다.

땅이 넓은 중국인들의 이별은 국토가 좁은 우리와는 달리 한번 헤어지면 자칫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어 그에대한 심정을 읊은 시詩니 글이 여러 곳에서 등장한다. 문과大科 시제였다.

매헌梅軒 선생의 시詩 용추龍湫 龍湫深復深 용추심부심 용추는 깊고도 깊기에 紫玉山溪尋 작운산계심 작운산 계곡을 찾았구나 晝夜流無畧 수야류무사 밤낮으로 흘러서 그치지 아니 하니 淵源從可尋 연원종가심 이를 따라 연원을 찾을 수 있네. 胸襟渾覺爽 흥금혼각상 가슴 속이 현연히 상쾌해지니 塵累不能侵 진루불능침 세상의 티끌도 침범할 수 없어 所以吾夫子 소이오부자 우리들의 스승께서 名之日洗心 명지일세심 세심대洗心臺라 하였네.

草甘書齋偶吟 1581년, 초감서재에서 읊음 朝則咬齧暮則監 조칙고제모칙음 아침엔 나물먹고 저녁에는 소금이라. 歲維辛巳月維三 세유신사월유삼 해로는 신사년(1581)이요, 달로는 삼월이네. 簞瓢所樂吾何事 단표소락우하사 안빈안의의 즐거움 내 무엇을 바라리오. 喫苦寒齋亦甘 끼고한채조역감 쓴 것 씹는 찬 서재에선 풀도 달다네.

매헌梅軒 선조先祖先가 남기신 운문과 시詩는 신神的 기슴을 울릴 문장이었다. 4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매헌 선조의 문장을 마주하면 떨림 현상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매헌(1557~1634) 선생은 지난 5백년간 우리 역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시대에 태어났다. 30대에 임진왜란과 정묘호란을 맞았는가 하면 무오戊午 갑자甲子 기묘己卯 을사乙巳 사회土禍의 영향으로 사림士林들이 출사를 포기하고 산산으로 들어가는 시대였다.

이런 시기에라도 학문을 숭상한 예포(驍輔, 학문이 뛰어난)고 어진 선비를 가리키는 말)이시였으며 근사록(송시대 주자학朱子學 입문서入門書)을 머리맡에 두고 지내실 만큼 학문적 명성이 한 시대를 빛냈다.

국보 153호 일성록(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유산: 영조 28년(1752) 정조가 세운 시절부터 1910년까지 주로 국왕의 동정을 기록한 책, 승정원 일기와 같다.)의 역병장으로서의 일성과 효행스러운 문장가로 두 번씩이나 기

록됐다. 신神의 기슴을 울릴 문장이었다.

정조 6년(1782) 어전회의에서 당시 영의정領議政 서명선(徐命善)의 상정안대로 영남의 선비 권사민權士敏에게 좌승지 겸 경영참찬관(당상관)에 추증할 것을 왕명으로 의결했다.

정조 21년(1797) 6월 9일에 가진 어전御前회의에서도 영남관찰사嶺南觀察使와 승정원承政院에서 올린 안건을 심의, 충효정려忠孝旌闈를 왕명으로 내렸다. 임란壬亂, 창의로 나라에 충성하고 효로 충충, 효후 정려가 내린 사례는 조선 5백년 간 두서너 집뿐이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당대의 명상(명의정) 오리 이원익(梧里 李元翼 1547~1634)은 그의 문인들에게 남쪽의 선비 권매헌權梅軒을 만나지 못해 그의 고고한 학문을 알지 못했다가 차기(筆記 사실만을 기록한 상소문)를 보고 권사민權士敏이란 석자를 알게 되었다.”고 말한 것을 그의 후손 승지承旨 완산完山 이겸환李謙煥이 듣고 사적기事蹟記에서 남겼다. 지방에 묻힌 한 선비의 학문이 한양漢陽까지 알려진 증거證據이기도하다.

조예(造謠, 깊은 학문 또는 뛰어난 글재주)한 경지에 이르렀지만 선조가 내린 언양현감彦陽縣監 고지教諭를 던져 버리고 성리학性理學과 경서經書에 빠져 평생을 도회(蹈悔, 스스로 학문과 재주를 세상에 숨기고 산다는 뜻)하게 살다 가셨다.

십지어 아들(誦諱 응립應立 1577~1648, 생원진사生員進士 입격入格)과 세 손자(誦諱 식植 1607~1669, 휘諱 격격 1616~1691, 휘諱 길척 소년성군 생원少年成均生員)에게 까지 생진生進이상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시고 인재 양성에만 평생을 바쳤다. 출사하는 제자들에게는 수기치인(修己治人: 자신을 먼저 닦고 남을 가르치라는 뜻)을 먼저 당부하셨다.

16, 7세에 이르러서는 경서(經書: 사서오경 등 유교의 가르침을 적은 책)와 자사(子史: 제자諸子의 글)를 모두 외워 버렸으며 그 나이에 읽기조차 힘들었던 주역周易과 용학庸學까지 책을 통째로 외워 가슴에 담으셨다고 한다.

한번 책을 잡으면 경주까지 걸음, 학문을 논하기를 희망한 현직 재상宰相의 제도로 거절하셨을 만큼 독서삼매讀書三昧에 자주 드셨다. 지학志學을 넘어서면서 문장이 빼어나고 운문韻文과 시詩로 세상의 이치를 밝혔으며 주역周易까지 꿰뚫는 학자로 명성을 얻었으나 벼슬 운은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 같았다.

선친(귀봉龜峯 권덕린權德麟, 대과급제大科及第 예조병조정랑禮曹兵曹正郎)의 권유로 초시初試, 생원生員試, 회시會試(중앙과 지방에서 초시初試에 합격한 선비들을 한양에서 보는 2차 시험)에 무려 14차례나 입격入格하였을 뿐 어사화(御賜花 대과급제자에게 주는 종이꽃 관모)를 쓰지는 못하셨지만 7급 7품 훈도訓導를 지내면서 후학을 길렀다. 서당書堂에 들어서면 학문이 뛰어난 선비가 오셨으니 인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요즘으로 치면 서울 강남 과외선생이 제 발로 궁벽한 시골을 찾아 신분 상승을 꿈꾸는 자녀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또한 도체찰사都體察使에게 올린 두루마리 상소문은 “안진경(顏眞卿 당나라의 정치가이자 서예가,

그의 글씨는 근엄 완곡하며 특히 초서를 잘 써 당대 최고 서예가로 꼽혔음)의 서첩書帖과 더불어 길이 세상에 전해져서 사람은 죽었지만 정신은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글이 되었다”고 서산瑞山 유영로柳榮魯가 발문(跋文)에 쓰신 것을 보면 역시 매헌 선조의 학문과 정신세계가 지순지고至純至高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임진왜란壬辰倭亂을 정면으로 관통하셨고 임란壬亂이 끝난 시기부터는 후학後學을 가르치고 학자의 길을 걸었던 선생의 평가 같은 당대의 명상이신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을 비롯 이조판서, 대사성을 지내신 황경원黃景源, 대제학大提學 홍양호洪良浩, 지중주부사知中樞府事 권상일權相一等 임란이후 조선사립朝鮮士林과 의정부議政府, 성균관成均館, 6조六曹에서 이름을 떨쳤던 44분이 자필로 쓰고 남긴 기록에서 명료하게 설명, 전해진다.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경주향도장조慶州鄕道狀草엔 경상도 45개 고을에서 220명의 유림儒林이, 경주향교慶州鄕校와 서악서원西嶽書院 등 6군데 서원書院 유생 440명이 연명으로 포장을 요구한 상소上疏는 5백 년 조선 역사상 쉽게 찾을 수 없었던 선비들의 유소(儒疏, 유생들의 연명상소)였으며 2백 년의 시공時空을 뛰어넘었지만 매헌 선조의 학문學文과 시詩詩心이 떨림으로 다가서는 사부대명(師賦大鳴, 감동은 두 번)이어서 후학後學들의 상소마다 인용引用됐다. (경주시립도서관 소장)

이런 유소儒疏는 조선 5백년 역사에서 마지막일 것으로 기록됐다. 매헌 선생은 경주부慶州府 안강현安康縣에서 정년 시절을 보내셨다. 집과는 만나질 거리였던 초감서숙草甘書齋에서는 학문도 연구하시고 주역周易에 심취하셨던 시기였었지만 강의와 글을 짓는 일이 조금도 해이함이 없었고 매헌실기梅軒實紀에 기록됐다.

경주부慶州府 중리中里(경주 동 천마공원 부근) 서당 등 7급 7품의 훈도訓導를 지낸 기록이 뒷받침한다. 임진壬辰년 난리가 일어나자 공은 어머니(숙인안양하씨淑人安陽許氏)를 모시고 옥연서당玉淵書堂이 자리한 경주부남慶州府南에 피란避亂한 것이 세가지가 되었다. (매헌실기사적기梅軒實紀事蹟記에서 발췌)

임란壬亂도 평정되고 생진生進(생원生員과 진사입격進士入格)이신 아들(誦諱 응립應立)을 두었음 시기에도 검소한 생활로 안빈安貧을 즐겼으며 여름철엔 등성등성 땅은 짙은 신을 신고 한 마리 미물도 밟혀 죽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신 생병 존중 사상이었다.

폐양자(弊陽子: 벼들로 짠 모자)와 추포의(麤布衣: 거친옷)를 주로 입으셨으며 길을 걸을 때도 소매에 책을 넣고 말 대신 소를 타고 다니셨으며 비록 노비라도 두터운 은혜로 대하시고 누구이든 함부로 부리지 못하게 했다.

육정불부(六徵不赴 여섯 번의 부름에도 벼슬길에 나가지 않음)의 정신으로 학문에만 전념하신 매헌 선조를 기리고 칭송稱頌하는 시詩가 서안書案에 쌓였으나 35수만 실기實紀에 올려져 아쉬움을 남겼다.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용추龍湫를 배경으로 읊은 한 줄짜리 시詩 “산빛이 곱고 흐르는 물이 맑다.”로 처럼 매헌 선생의 삶은 임란 7년을 빼고는 은유자적隱喻自適하셨다. 매헌 선생이 평생 지은 시詩는 5백 수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4월호에도 계속됩니다.)

안동 연원재燕院齋에서 좌운공파 정알레 봉행



안동시 북후면 연원재(燕院齋)에서 2월 15일 오전 10시 파시조좌운공派始祖佐尹公, 추밀공樞密公, 정랑공正郎公, 문과공文科公 단소 정알레에 이어 14세 영가군永嘉郡, 15세 고려 문하시중공門下侍中公, 16세 문정공文靖公, 17세 현령공縣令公 묘소까지 알묘 행사를 가졌다.

이날 정알레엔 헌관(獻官)을 맡으신 권영대(權寧大) 노봉서원(魯峯書院) 위원장, 홀(尙, 권응호權容浩)을 비롯 권영복(權寧福), 권혁웅(權赫雄), 권태원(權泰元) 서울 경주 예천 종친회장, 권수웅(權秀雄) 대동회부회장, 권정창(權正昌) 제례위원장, 권혁무

(權赫武) 권오수(權五壽) 권오교(權五教) 원로위원, 권태은(權泰殷)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권혁근(權赫根) 신라진평왕릉(新羅眞平王陵) 참봉參奉, 권진택(權鎭宅) 운곡서원(雲谷書院) 유사(有司) 등 전국에서 50명이 넘는 후손들이 참석 했다.

정알레와 음복례 및 점심이 끝나고도 3시간이 넘게 제사(齋舍)에 남아 15개 파 선대(先代) 실록 얘기로 지친(至親)의 정을 쌓았다. 특히 중국 북경에서 처음으로 참제한 권해수(35세 현령공) 후손 내외분으로 인해 더 빛났다.

권오신 좌운공파총회 회장

안동권씨 전주완주종친회 제 59차 정기총회 개최



2025년 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안동 권씨 전주, 완주종친회 제59차 정기총회가 권이수 회장님과 인원 및 운영이사 그리고 원로이신 권진태, 권오신, 권기성, 권자하 고문님을 비롯한 많은 회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권씨 전주, 완주 종친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된 신년 하례식에서 우리 종친회 제1대 어르신 권봉철 부회장께서 지난해 종친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았던 집행부에 감사사를 표하고, 향후 종친회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방향과 건강의 중요성에 대하여 나이를 먹을수록 사암들을 자주 만나 대화하면서 건강을 지키면서 종친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권영춘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한 해 동안 우리 종친회 발전에 공이 큰 권오신, 권기성 고문님께 감사장을 수여한 후 국민의례, 권이수 회장 인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24년 결산보고 및 25년 예산 “안” 승인 및 운영계획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날 우리 종친회 발전과 후손들의 인재를 양성을 위하여 매년 소정의 장학금을 기부 해 오고 계시는 권오신(35세) 고문님께서 올해도 변함없이 장학금 100만원을 기부하셨으며, 권봉철(33세) 부회장님께서도 매년 우리 종친회의 발전기금을 기부해 오고 계시며, 올해도 변함없이 100만원을 기부하였다.

이어서 권이수 종친회 회장님께서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주, 완주 종친

회 발전을 위하여 장학금을 기탁하여 주신 권오신 고문님과 발전기금을 매년 기부하고 계시는 권봉철 부회장과 오늘 소정의 잔조금을 기탁 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재입하는 동안 물산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전 회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회원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갖고 우리 종친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건실한 재정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일기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주, 완주 종친회가 임원진과 함께 회원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회원님들의 권리와 복리증진에 더욱더 발전된 전주, 완주 종친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어서 감사(권오신, 권혁신)의 23년도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재무이사(권오초)의 진행으로 2024년도 결산보고 및 2025년도 예산 “안” 과 사업계획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회원들의 개의 및 동의를 얻어 원 “안”대로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2025년도에도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사업계획과 건실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종친회 발전과 회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어서 중식을 종친회 회관에서 간소하게 화기에 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종친회원을 대표하여 권기성 고문님의 간배 제의로 중식을 마무리하고 25년도 제59회 정기총회를 무사히 마쳤다.

권영춘 전주, 완주종친회 총무이사

2025 신년맞이 능곡회 율놀이 한마당 개최



권광택 능곡회 회장

안동 능곡회(陵谷會: 회장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장)가 주최하는 “2025 을사년 신년맞이 능곡회 율놀이 한마당”이 2월 22일 오후 3시 안동시 용상동 ‘조박사 일품동’식당에서 능곡회원 및 부인회원, 능우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권진업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율놀이 한마당 행사에선 국민의례, 시조묘소 망배, 내빈소개, 회장인사, 축사, 상음례, 율놀이 및 상품안내, 율놀이대회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내빈으로는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하여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권오관 능우회장이 참석,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 자리에서 능곡회장단 임원 6명이 회원들을 향하여 큰절을 하면서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말을 올렸다.

권광택 능곡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율놀이 장소가 넓어서 좋고 을사년을 맞아 청사의 기운을 받아 아무 탈 없이 지내시기를 기원한다”고 했으며 권오관 능우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율놀이는 재미있

게 놓고 웃음보따리는 집에 가지고 가서 풀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어 권철환 회장은 축사에서 “안동 종친회장을 3년하고 올해 4년째 접어들었는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곡회가 힘을 실어 달라”고 부탁했으며 “권문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축사에서 “안동권문이 하는 일이 안동역사이며 안동권문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권기운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과 권태형 안동농협조합장은 인사말에서 “율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잡수시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권진업 사무국장은 각계각층에서 들어온 상품을 소개하였는데 고기선물 세트, 이불, 가습기, 세제, 홍삼 세트, 꽃감, 백진주쌀, 마, 라면, 미용티슈 등 15개 종 90여 점으로 회원 한 사람당 상품 1점 이상을 가져가게 되었다.

율놀이 대회는 청팀과 홍팀으로 나누어 팀당 25 명씩 율놀이를 한 결과 홍팀이 승리, 우승 상품으로 티슈를 받았다. 율놀이 중간 중간 경품추첨을 하여 푸짐한 상품이 전달되기도 했다.

4시간 동안 즐거운 율놀이를 하고 나서 오리고기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후 푸짐한 상품을 받아들이고 모두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